시인과 은행

나희덕
시인

시인은 은행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주 가야 한다

은행 빚을 갚아온 삼십 년 동안
대출 담당자 앞에 앉을 때마다 느껴야 했던 감정들,
끝없이 비워내야 했던 생각들,
빚을 갚기 위해 거리에 버린 시간들,
열차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종종거리던 날들,

은행 금고에는
그 저당 잡힌 감정들과 생각들과 시간들로 가득할 것이다
물론 미래의 시간도 거기 갇혀 있을 것이다

시인은 이따금 환전하러 가기도 한다
빚이 남아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환전해주는 돈은 왜 늘 새것일까,
빳빳한 달러화를 받아들고
시인은 그 달러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잠시 헤아려보지만 알 도리가 없다

자신이 곧 국경을 넘어
돈을 물어나르는 매개가 되리라는 것밖에는

시인은 은행을 나와
낙엽이 뒹구는 거리를 걷는다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했던 시도 있었지
낙엽들 사이로 은행알이 지뢰처럼 숨어 있고

시인은 천천히 걷고 있다

터진 은행알을 밟지 않으려 애쓰면서
은행에 저당 잡힌 감정과 생각과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정작 은행에 대해 시 한 편 쓰지 못했다고 중얼거리면서